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교회식 어르신
김진철 작가



고두연 어르신
김신숙 작가



고현권·고지훈 대표
이나연 작가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



양정숙 어르신
양혜영 작가



강달인 어르신
정신지 작가



안순생 어르신
김순자 작가







차례

- 07 **삼도리 해녀**
- 강달인 어르신
- 14 **이슬의 땀**
- 고두연 어르신
- 21 **삼대에 걸쳐 책을 파는 가업**
- 우생당 고현권, 고지훈 대표
- 29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드만**
- 교회식 어르신
- 38 **오래된 미래, 그 안의 삶**
- 안순생 어르신
- 46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양정숙 어르신
- 54 **구슬과정**







삼도리 해녀



강달인 | 여, 1931년생

제주시 상귀리 출생
제주시 탑알길 거주





셀 수 없이 많은 소소하고 정겨운 기억들이 매립과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것, 사람들은 그것을 아쉬워한다.

8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물질은 할망의 천직이다. 열셋의 나이에 바다에 들어 전복, 소라, 미역을 직접 캐내기 시작하며 할망은, '그래, 이거라도 좀 해보자!' 하다가 해녀가 되었다고 했다.



해녀는 '욕심'이 이서야 살아.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물 밖에서 일할 때
랑 바닷에 강 일하는 것이 마음이 달라.



“반평생 물질한 바다보며 읊니다”

탐동 매립으로 삶터 잃은 제주해녀 강달인씨



“50년 가까이 일해온 바다가 망가져 버려 요새는 한라산에 올라 고사리를 따는 일로 살아가지요. 바다를 보면서 서럽게 혼자 운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제주해녀 강달인(59)씨는 말한다.

강달인씨는 오늘(19일) 열리는 임시국회 건설위에서 다루어질 제주도 탐동 앞바다 매립 문제에 대한 청원이 제대로 되도록 로비를 하러 해녀 현심순(36)



라도 던져 주었으면 조금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집 안방보다 더 친근했던 바닷속이 이젠 전쟁 뒤의 폐허처럼 되어버렸다. 물도 깊어지고 조류도 빨라져 도저히 물질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해녀 한 분이 바다에서 죽었지요. 제 어머니, 할머니가 다 해녀지만 그런 일은 없었지요. 물질이 달라져 버려 생긴 일이죠.”

열살때부터 물질을 시작한 강달인씨는 바다를 떠나 살기가 무척 괴롭다.

“이젠 돌아갈래야 돌아갈 바다도 없어져 버렸지요. 우리의 일터를 없애면서 시작한 개발공사의 이익금이 제주도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싸우겠

“수익금은 도민 것”...불법개발도 따져

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87년 7월부터 시작된 제주도 탐동 앞바다 매립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들 40여명의 해녀들은 처음엔 보상금 5백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바다를 포기했다.

그러나 88년 3월 공사를 맡은

범양건설쪽이 해조류가 서식하는 '떡돌'을 바다에 던져주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그대로 매립해 버리자 분노해 일어섰다.

“매립공사를 시작하고부터는 흙탕물, 폐수가 내려와 아예 전복, 소라도 다 죽어버리고 미역도 볼 수 없게 됐지요. 떡돌이

습니다.”

제주도 탐동 매립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매립허가 나오고 개발수익금 1천5백억원이 제주도민에게가 아니라 시공업자쪽에 돌아가도록 돼 있어 그동안 제주도민의 큰 반발을 사왔다.

〈김미경 기자〉

할망은 탐동(삼도동) 해녀회장으로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다. 그 모습이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몇 차례나 알려진 적도 있을 정도다. 50대의 후반이 그렇게 지나갔고, 탐동이 완전히 매립되었을 때 할망은 예순 살이 되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데모하는 곳에 갔었고, 함께 반대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항상 할망의 주변에 있었다.

1989.05.19
한겨레신문 김미경 기자



할망에게는 '또순이'라는 이름을 한 작고 하얀 강아지가 있다. 벌써 십오 년이나 삶을 함께하고 있지만, 또순이는 할망이 불러도 다가오는 법 없는 무뚝뚝한 강아지다. 여관입구에 깔린 작은 방석에 터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12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하루하루 기억이 희미해지는 할망의 시간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기억들과 조우할 수 있던 것은 큰 축복이었다. 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살아온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토록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다.







할머니는 자신이 혼수로 가지고 간 까는 이불 위에 앉아 손가락을 바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가 무근성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 왕이라. 경로당 노인 회장도 나신디 “삼촌이 이제 묵은 성 본토박이 중에, 왕이우다.”라고 고라서. 나가 무근성 왕이라.”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춤을 추듯 말한다. 무근성의 왕, 우리는 무릎관절이 아픈 무근성의 왕을 만난 것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두연 할머니는 무근성에서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다. 할머니는 새벽이슬을 많이 밟아야 했다. 할머니가 출산하기 전 비춘 이슬들, 살아오며 남 몰래 흘린 눈물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할머니 입에서 툭툭 뱉어질 때 나는 알았다. 그 이름들이 모두 이슬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워서 부르는 것이다.





무근성 달빛이 아무리 휘영청 밝더라도 시집가는 날 고두연 할머니의 얼굴 보다 더 환하고 곱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래춘심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 얼굴은 아주 환했다. 올래춘심을 구경하려고 옷담드레 도라진 사람들이 우르르 웃는 소리가 칠십여 년이 한참 지나도 할머니 귓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한 동네에 사는 사내와 계집이 만나 새 가족이 되는 순간을 구경하는 무근성 사람들이 우르르 웃는 표정을 생각한다. 무근성 가장 환한 날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잔칫날 아니었을까.

18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아기들 어릴 때는 밭에 가면 뱀이 제일 무서운 거. 덩석 깔앙 아기를 구덕드레 눕혀 놓고, 그땐 밭에서 뱀이 하니까, 뱀이 아기를 물면 아기는 단번에 죽어 불거든. 아기가 잘 이싱가 살피러 가야해. 뱀이 과랑하게 나면 가서 아기구덕드레 옆으로 널판지로 가려주고, 하이고, 그렇게 구남매를 몽땅 키워서 공부 시키고, 시집 장가보내고 재산 나눠주고, 하이고, 잘도 해졌다.”



무근성에 젊은 부부가 많아지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 갈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어울리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곳을 유년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무근성이 되길 바란다.

20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산대에 걸쳐 책을 파는 가업



고현권 | 남, 1951년생
고지훈 | 남, 1975년생

제주시 한빛골 출생
제주시 한빛골 거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독립하면서 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거의 맞물린 시점에 우생당은 제주시 관덕정 남쪽에서 개업했다. 1948년 3월 제주시 남문통 천주교 교육관으로 잠시 적을 옮겼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원정통, 지금의 관덕로에 장소를 옮긴 이후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그 터에서 끊임없이 책을 받고, 팔고, 정리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점 우생당 주인 고순하 씨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면서도 수지만을 계산하는 사업가는 아니었다. 특히 계 선생을 모시는 데는 각별하였다. 계 선생은 물론이지만 문학 동호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예외 없이 문인 아닌 고순하 씨의 얼굴이 끼어 있었다. 다방에서 차를 마셔도 찾값은 늘 일방적으로 고순하 씨가 치렀고, 회식 때에도 그랬다.



1950년대를 ‘제주문학의 부흥기’라 부르는 공은 많은 이들이 계용묵에게 돌린다. 1998년 제주문인협회에서 한국문인협회의 한국현대문학 사적지 표징 사업 지원을 받아 칠성로에 ‘계용묵 선생의 문학 산실’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원도심이 다시 제주의 문화형성의 토대로 기능했으면 좋겠다. 공동화가 안 되게끔 모두 협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한다. 이 부분을 고심하다보면 다다른 결론은 결국 문화컨텐츠가 답이라는 것이다. 역사와 전통, 향수가 녹여져 있는 이 지역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본다.

24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앞으로의 우생당에 대해 말하라면,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닌, 오래됐지만 새로움을 추구하는 서점이 되고 싶은 것이 목표라고 말하겠다.





우생당이라는 서점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는, 우생당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28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드만



고희식 | 남, 1934년생

제주시 남문로 출생
제주시 아라동 거주





북초등학교는 1907년에 개교한 이래 한 세기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북초등학교는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그래서 원도심에 살았던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북초등학교에 대한 추억을 하나쯤은 기억하고 있다.

30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그가 태어난 곳은 남문로 인근이지만 세 살 쯤 되었을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 후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



“지금 중앙로에 중앙시장 있잖아. 그 바운드리가 오현이지. 오현단 있는데가. 고등학교는 나중에 생겼지. 성벽이 그때도 있었지. 뒷담이 됐지. 그래서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때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지으니까 천막 쳐가지고 공부하고. 원칙은 그게 국소유지였지 아마. 농중이 거기 있었어. 농중이 이사 가니까 공터가 있으니까 오현이 들어갔어.”





학창 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배구이다. 당시에는 배구와 축구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구를 했다. 당시 배구는 지금과 같은 6인제가 아니라 9인제 배구였다.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우체국 지나서 칠성통 가면 들어가는 입구 좀 지나서 우리 어릴 때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2층에 방첩대, 군인 방첩대가 있었어. 해군 방첩대가 있었어. 그 앞에다가 그냥 세워서 두었어. 손가락 하나 꼽고. 며칠 동안 세워두었어. ‘총사령관 이덕구’ 인가 글을 붙이고.”





“우리 어렸을 때 산지천에서 장어도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잡고, 많이 잡아먹었어. 같은 학년인데 나이는 두 살 위인 친구가 그런 것을 좋아해서. 학교 끝나면 ‘야, 가자’ 해서 잡아서 먹고 했어. 산지천에 가면 음료수가 있어. 거기 물을 길어다 먹었어. 산지천은 계속 나와. 옛날 빨래터 있던데. 물 나오는 데가 이서.”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개구쟁이였던 한 소년이 주름진 노인이 되기까지 한 세월을 마주하는 동안 시간을 거슬러 원도심 곳곳의 옛 이야기들을 만났다. 켜켜이 쌓여 있는 소중한 기억들이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엿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부모가 살던 집인 '항골'로 이사온 안 할머니는 조상들의 삶터에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다. 이후에는 안 할머니 홀로 초가를 지키고 있다.





안 할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는 “아기 배부른 것을 행복”
으로 여기며 살았다.





안 할머니 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거리(안채)’ 오른쪽의 먹구슬나무가 심어진 동산이다. 돌계단을 올라야 다다를 수 있는 이 동산은 안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살았을 당시, 한때 제주 시내 여론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쉼터였다. 집보다 높게 쌓은 돌담 위에는 아름드리 먹구슬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는 동산이 있어 사람들이 휴식 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할머니 집을 둘러보다보면 옛 사람들의 삶의 온기가 느껴진다. 초가 '안거리' 부엌 앞쪽에 세워진 '물팡', 수돗가에 놓여 있는 '풀 7레', 집 뒤에 설치된 장독대, 장독을 받치는 '7레착(맷돌짜)', 부엌에 바닥을 파서 묻어 놓은 '물항' 등은 할머니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다.





공간이 사라지고, 그 공간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도 함께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등을 더 많이 불러 내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이라도 해 두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양정숙 | 여, 1929년생

제주시 조수리 출생
제주시 일도동 거주





할머니와 마주하면 삭막한 콘크리트로 매몰된 탑동 인근의 무근성이 아니라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아이들이 환한 햇살처럼 파도 위로 뛰어 내리던 무근성을 만날 수 있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를 노래하는 시인을 키워낸 자혜롭고 웅골찬 제주 어머니의 삶을 들을 수 있었다.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그저 이름자나 쓸 줄 아는 사람이어서 이름을 댄 모양이라. 조사해봤자 특별히 나올 게 없으니 풀려나긴 했는데. 무조건 억박 지르고 매질하려는 경찰 때문에 한참 악몽을 꾸었어.”

비록 그날은 경찰서에서 별 탈 없이 석방됐지만 또 언제 붙들려가 수난을 겪을지 몰랐다.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 시체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한 시절이었다.

48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군인답지 않게 부드러운 말씨와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다. 만날수록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김중현 씨의 청혼을 받아들여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진해 육군부대 근처에 신집살림을 꾸렸다.



유독 할머니 앨범에는 장공장 골목 사람들 사진이 많았다. 특히 한복을 입고 놀러간 사진이나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는 사진은 죄다 장공장 골목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함께, 즐거운 일은 더욱더 함께하는 장공장 골목 사람들은 누가 먼저 제안한 일이 없는데도 자연스레 골목 친목을 형성했다.



“最愛の妻 (사이아이노즈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로 사랑하는 아내에게’란 뜻이다. 제주에서 편지가 온 날엔 한데 모여 편지를 읽었다. 남편의 끝인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버리고 여기 온 거냐’며 놀렸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우면서 내심 한국에 있는 남편이 고맙고 그리웠다.





“무근성에서 좋은 며느릿감은 다 꽃집에서 데려감 신계.”

그랬다. 동네에서 다들 탐내던 며느릿감을 만나니 할머니는 더없이 마음이 편했다. 서른 되도록 장가 갈 생각을 안 해 걱정을 끼치더니 부모 모르게 연애를 걸어온 것이 앙큼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은 짝을 찾아 온 것이 대견하기도 했다.

52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기억이란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일이다. 사람마다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시간과 장소를 메모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자꾸 입으로 되뇌어 상기한다.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만난 사람을 글에 담는 것이다. 훗날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올 여름에 만난 할머니를 떠올릴 것이고, 함께 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구슬과정 | 2017.06~2017.09





56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58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60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 기억으로 듣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구술자 강달인 어르신
 고두연 어르신
 고지훈 우생당 현 대표
 고현권 우생당 전 대표
 고희식 어르신
 안순생 어르신
 양정숙 어르신

집필자 김순자 작가(제주어연구소 이사)
 김진철 작가(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김신숙 작가(시트러스 구성작가)
 양혜영 작가(제주작가회의)
 이나연 작가(헬파트프레스·씨위드 대표)
 정신지 작가(인터뷰작가)

사진·촬영 양동규 작가(이디아트 디렉터)
 양천우 작가(이디아트 에디터)

기획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유산·기획사업본부 문화재생팀
 담당·자료정리 신상미

인쇄·제작 하나출판

발행일 2017년 11월 25일
 발행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
 발행처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fac.kr
 주소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